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로 동결

4회 연속 금리 동결기로... 물가 2%로 하락했으나 추세 확인 필요·하반기 경제 회복세 예상보다 미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4차례 연속 동결이다.

물가 상승률이 2% 대로 떨어졌지만,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금융불안이 높고 금리 인상을 사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동결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이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2022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의 결론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

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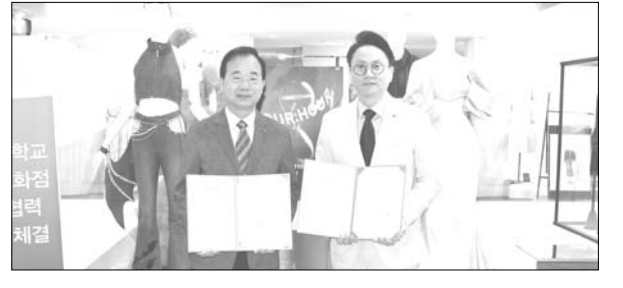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가 3.5%로 하락세가 더딘데다,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기 충격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도 작

유했다.

물가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예금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 시장의 위기가 깊어지고 고조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부채질할 수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뉴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3일, 백화점 7층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주대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진배 전주대 총장, 김정구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

“지역사회 인재 양성 위해 협력”

롯데백 전주점, 전주대와 MOU·졸업작품 전시회·장학금 전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김정구)은 13일, 백화점 7층 집무실에서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생 성과와 지역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전주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과 롯데백화점 김정구 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7층 집무실에서 MOU협약을 체결한 뒤 2층 이벤트 홀에 전주대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학생들의 결합과 노하우를 기반한 졸업 작품을 감상하며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과 전주대 패션산업학과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디자인·발굴 프로젝트·졸업작품 전시회를 지난 7일부터 7일간

진행하고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본 협약으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과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주대 학생이 각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구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 패션 디자인산업 발전과 신 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인적 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 등 우수한 패션전문인력양성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협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스마트농업 교육장, 스마트 농업 확산 위한 거점 역할 '톡톡'

농진청, 전국 114곳 운영·올해 5곳 추가 조성... 2027년까지 총 150곳 운영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실증연구) 교육장(이하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인 육성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보급·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해 현재 114개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충북 옥천 충남 보령 전남

하순 경복 의성 대구광역시 등 5곳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각종 감자(센서), 영상기기, 수경 재배시설, 자동화 장치 등을 갖춘 실증연구 온실과 자료(데이터) 관리 시설, 기자재 전시장 등이 조성돼 있다. 실증연구 온실에서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지역별 특화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는 지능형 농

장을 도입했거나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능형 농장 시설 운영, 감지기 측정·제어·배치·양액 관리, 작물 생육 자료 수집·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교육 인원은 총 5만4,110명에 달하며, 올해도 8,000명 이상이 교육 및 전문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 이수 후 기준에 운영하던 일반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이 2,008명이었고 2022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753명은 일반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보다 생산성은 22.7%, 농가소득은 26.4%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의 시설보완 환경개선 등 지역 맞춤형 고도화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고, 2027년까지 총 150개소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희망더드림 특례보증대출’ 상담 종료

JB금융그룹 전복은행, 17일부터 총 1200억원 금융 지원 시작

JB금융그룹 전복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3일 전주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대출’의 상담이 종료됨에 따라 전복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서 발급에 발맞춰 오는 17일부터 금융지원을 시작하고 신속한 지원에 앞장선다.

앞서 지난 3일 전복은행은 3%(고금리, 고회환율, 고티율) 및 1%(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44억 원을 특별 출연, 전주시와 함께 총 1,200억 원 규모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대출’ 상담 및 신청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 2023년 지원목표인 500억

원을 달성하여 13일 현재 신규 상담 접수가 종료, 기존예약 대기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전복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전복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서 발급에 발맞춰 오는 17일부터 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복은행 백종일 은행장은 “희망더드림 특례보증대출의 신청접수가 4일 만에 종료되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공감하게 됐다”며, “따뜻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해외바이어와 상담으로 수출판로 확대

중기청,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도내 18개 중기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전복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복중기청)은 202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13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전복중기청과 전복창업센터, 전복코트리가 협업을 통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일반 중소기업에 스타트업까지 확대해 모집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수출상담회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7개사·중기 18개사가 참여해 총 28회의 상담이 이뤄졌다.

우선 도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희망 수출제품 정보를 미리 해외바이어에 제공하여, 해외바이어가 직접 수출상담 희망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외바이어와 참여기업간 일



2023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모습.

대일로 매칭하여 가격경쟁력, 품질 등 수출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전반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복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상담회의 양적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참여기업 설문조사와 해외바이어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내실있는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지리산농협, 남원 냉해 피해 농가 지원

1137개 농가에 총 8800만원 상당 지원물품 전달식 진행

정대환 조합장 “자연재해에 농가와 힘 합쳐 슬기롭게 대처”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은 지난 4월의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농가들과 고통 분담을 통한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농협중앙회 자금지원과 지리산농협 자부담으로 지난 7월 6일(목)에 냉해 피해 1,137농가에 총 금액 8800만원 상당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환 조합장은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관내 농산물 재배농가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무 기자

한양,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견본주택 오늘 오픈

‘에코시티 최중심 입지... 풍부한 생활 인프라 · 쾌적한 호수생활권’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 26일 2순위 청약
내달 1일 당첨자 발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투시도

(주)한양(대표이사 김형일)은 전북도 전주시 에코시티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견본주택을 14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단지에는 전주에서도 정주여건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시티의 최중심에 들어서며 전주 최고층 랜드마크로 지어질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전라북도 전주시 에코시티 주상복합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8층, 2개동 전용면적 84㎡A·B·C타입 268세대(오피스텔 126실 별도, 추후 분양 예정)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일반부양 세대수는 △84㎡A 45세대 △84㎡B 178세대, △84㎡C 45세

대다

단지의 청약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받는다. 이후 8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전주 에코시티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CGV 등 중심상업지구와 복합문화시설이 가깝고 화정초 화정중 등과 학원가

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특히 세병호(세병공원)와 백석저수지 등이 가까이 쾌적한 호수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익산~장수)와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역(KTX) 등이 인접해 있으며, 동부대로 및 과학로를 통해 전주 시내·외 이동도 편리하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주거 편의성을 높인 특화설계를 도입해 상품성을 높였다. 모든 타입을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설계로 적용했으며, 주방은 L/ㄱ자형으로 설계하고 다용도실을 인접 배치해 효율적인 주방 동선을 계획했다. 또한,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 쿠첸 3구 인덕션 등 빌트인 가전과 욕실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욕실 스타일업 옵션, 주방 세라믹 상판 및 벽체, 거실/복도 세라믹 타일의 마감재 등 다양한 옵션을 마련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내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내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펫가든, 커뮤니티실과 연계한 그라스가든, 잔디마당과 연계한 어린이 놀이터인 플래이가든, 세병공원과 세병호 조망이 가능한 캠퍼스 등 다양한 야외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시설, 작은도서관이 계획된 커뮤니티도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에코시티는 전주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에코시티 내에서도 최중심에 위치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희소성까지 갖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또한, 단지는 전주 최고층의 상징성까지 겸비해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견본주택 방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6번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